

# 보아, 데뷔 20주년...밀레니엄 불러온 한류 스타'

###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명실상부 '한류스타 원조'

### '여성 솔로' 가수 대표주자...“20년 동안 구설 없어”

“피스 비 마이 네트워크 아이디(Peace B is my network ID), 우린 달라요. 갈 수 없는 세계는 없죠.” 한국 대중음악의 밀레니엄은 가수 보아(34·권보아)와 함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 수 없을 거 같았던 세계’로 뻗어나 가게 만들었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보아는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명실상부 ‘한류스타의 원조’다.

‘넘버 원’ ‘아틀란티스 소녀’ ‘걸스온탑’ ‘발렌티’ 등의 대형 히트곡을 내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류를 개척한 그녀에게는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도 붙는다.

보아 덕에 후배 가수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진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보아는 지난 1998년 초등학교 6학년 때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에게 발탁됐다.

이후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그녀는 만 14세이던 2000년 8월 25일 데뷔 앨범 ‘아이디; 피스 비(ID; Peace B)’를 발표했다.

이듬해 일본에 진출한 뒤부터 보아의 실력과 가능성이 크게 드러났다.

애초부터 보아의 활동 영역은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이었다.

SM의 기획, 마케팅, 시장조사 노력과 맞물리면서 보아는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다.

특히 2002년 일본에서 발매한 현지 첫 정규앨범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로 한국 가수 최초로 오리콘 일간, 주간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100만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

록했다.

이후 보아는 일본에서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오리콘 차트에서 수차례 정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지 최고의 가수들만 출연한다는 일본 연말 최대 음악 축제인 NHK ‘홍백가합전’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연속 출연하기도 했다.

2008년 출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였다.

그 결과 2009년 보아는 셀프 타이틀 앨범 ‘보아(BoA)’를 통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지금이야 ‘방탄소년단’, ‘슈퍼엠’ 같은 팀이 ‘빌보드 200’ 1위를 비교적 쉽게 차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차트에 진입한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가요계에 기념비적인 쾌거였다.

이처럼 2000년대 일본의 한류붐 조성, 2010년대 한국 가수들의 빌보드 진출 러시의 선봉에 보아가 있었다.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만으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던 지난 2015년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미지, 이선희 등 국민 가수들이 공연한 상징적인 장소로 대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앞서 남성 아이돌 그룹 ‘H.O.T’와 ‘젝스키스’ 등이 이 무대에 올랐으나 여성 아이돌이 홀로 공연한 사례는 없다.

그런데 보아가 그 불문율을 깨트린 것이다.

보아는 싱글과 미니앨범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아홉 장의 정규 앨범을 냈다.

그녀가 앨범을 낸 흐름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보아가 영향을 준, 여성서사의 주체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 2005년 갓 스무살이던 보아는 ‘걸스 온 탑’에서 노래했다. “모든 게 나에게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라고

30대 초반이 된 보아는 지난 2018년

‘2018년판 걸스 온 탑’이라 할 수 있는 ‘우먼’에서 13년 전을 돌아본다.

“여자다움을 강요한 그 때, 여자다움을 몰랐던 그 때”라고. ‘걸스 온 탑’은 여성 솔로 가수의 대표주자로 살아온 ‘걸 크러시’ 보아를 대표하는 곡. 자신감 넘치며 당

당한 여성상을 표현했다.

‘걸스온탑’이 소녀의 당당함이었다면 ‘우먼’은 여성의 당당함을 노래한다.

또 ‘우먼’ 뮤직비디오에는 다양한 인종, 연령대의 여성들이 나온다. 단순히 성, 인종을 넘어 ‘내가 아닌 누군가 되려고 한다’는 의식보다는 ‘있는 그대로 더 멋진’ 것을 강조하는 노래. 그건 다양성이 화두인 지금과도 맞물린다. 데뷔해서 20년을 살아오는 동안, 보아는 한류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화에도 기여했다.

10대 가수의 대표주자였던 보아는 SBS TV ‘K팝 스타’ 심사위원, ‘보이스 코리아 2020’ 코치의 모습을 통해 따듯한 카리스마를 갖춘 멘토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아를 통해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은 간단치 않지만,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20년 동안 구설 없이 성실하게 가수 생활을 해올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아의 데뷔 20주년을 단지 낭만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기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기억해내야 하는 이유다.

보아의 히트곡은 뿌리가 깊어 여전히 무성한 잎사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녀의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아워 비러브드 보아(Our Beloved BoA)’가 예다.

엑소 백현이 ‘공중정원’, 불쌍간사춘기가 ‘아틀란티스 소녀’를 재해석해 다시 선보였다. 미국 팝스타 갈란트는 보아의 동명 대표곡인 ‘온리 원’을 다시 불렀다.

갈란트는 보아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가수 유키카는 보아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보아의 음악적 영향은 국경,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녀가 한류의 개척자이자 현재 진행형인 이유다. 지금 한류의 위상이 그녀의 위치를 증언하고 있다.

## 더보이즈, 9월 컴백...‘로드투킹덤’ 우승 후 첫 앨범

### 7개월 여 만...고속 컴백활동 전개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다 음달 전격 컴백한다.

더보이즈 소속사 크래커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더보이즈가 오는 9월 중 컴백

을 확정했다”며 “엠넷 ‘로드 투 킹덤’ 우승 이후 첫 앨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보이즈는 지난 2월 발표한 첫 정규 앨범 활동 곡 ‘리벌(REVEAL)’ 이후 7개월 여 만에 고속 컴백 활동을 전개한다.

앞서 더보이즈는 지난 6월 ‘로드 투 킹덤’에서 ‘트리플 1위’라는 대기록과 함께 최종 우승까지, 프로그램 속 ‘경연 최강자’라 불리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소속사 측은 “더보이즈가 현재 컴백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새 앨범과 관련된 공식 정보들을 오픈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7년 12월 데뷔곡 ‘소년(Boy)’으로 화려한 데뷔 신고식을 치른 더보이즈는 이후 ‘Giddy Up’, ‘Right here’, ‘No Air’, ‘D.D.D’, ‘REVEAL’ 등 다양한 활동 곡을 발표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아시아 8개 도시 팬콘 투어와 유럽 4개국 투어 공연 등을 성료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한 더보이즈는 ‘로드 투 킹덤’ 최종 우승과 함께 MC, 예능, 화보, 연기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K팝 ‘대세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 최무성, 비케이이엔티와 전속계약



히 활동해왔다.

이후 영화 ‘사과’를 시작으로 ‘음란서생’, ‘방자전’, ‘베를린’, ‘연애의 온도’, ‘미옥’, 드라마 ‘공주의 남자’, ‘청담동 살아요’, ‘무정도시’, ‘기황후’ 등에서 활약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최무성은 영화 ‘세븐데이즈’, ‘악마를 보았다’에서 소름끼치는 악역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선 다정한 아버지와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등장,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선 투박한 외모지만 누구보다 따듯한 마음을 가진 살인범을 연기, ‘미스터 션샤인’에선 고해신(김태리 분)의 총포술 스승 등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다.

tvN 주말극 ‘비밀의 숲’ 시즌2에선 엘리트 코스라 불리는 노른자위 오직만 골라서 섭렵해온 귀족 형사법제단 부장검사로 최빛(전혜진 분) 부장을 상대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인물 ‘우태하’를 연기한다.

한편 최무성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정통 느와르 영화 ‘뜨거운 피’의 개봉을 앞두고 있고, 현재 특별출연으로 김태용 감독의 SF영화 ‘원더랜드’ 촬영에 헌정이다.

배우 최무성이 비케이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비케이이엔티 측은 17일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연출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총횡무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품 배우 최무성과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훌륭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연기에 대한 폭넓은 스펙트럼을 펼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1985년 고등학교 최무성은 연기 동아리를 통해 연극을 시작, ‘만데이 PM5’, ‘청소부’ 등 다수의 작품에 연출자로서 꾸준

## 이다도시 “전남편, 10년간 양육비 한 푼도 안줘”

프랑스 출신 귀화 방송인 이다도시가 한국인 전 남편과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다도시는 지난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 -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베드퍼터스’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고백했다.

이다도시는 2010년 5월 이혼했다. 당시 큰 아들이 12살, 막내는 5살에 불과했다. 그는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 4월24일까지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8일 애들 생일까지 매월 70만원으로 양육비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고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다도시는 “베드퍼터스에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양육비는 나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빛이다. 나도 대한민국 엄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집사부일체’ 거액 소송전...美주민들 “도둑촬영” vs SBS “협박”

### 약 16억원 손해배상 소송

SBS TV 예능물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17일 KB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아라 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

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